

제시문(가)와(나)는 공통적으로 '낭비'에 관해 논하고있다. 하지만 낭비의 유용성 인정여부와 낭비를 제거할 수있는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 제시문 (가)는 낭비가 유용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활력을 소모하고 표출하는 것에 기뻐하는데 이는 전차가 설비되어 있더라도 걷고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것에서도 볼 수 있다. 또 (가)는 낭비를 제거할 수 없다고 본다. 낭비하려는 마음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낭비하는것이 자아본위에 입각하는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낭비가 불필요하고 제거 가능한것이라고 한다. 길브레스는 벽돌작업에서 벽돌공들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위해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한다. 벽돌공이 도구를 집기쉽게 탁자위에 두고 비계의 높이를 조종할수있게하는등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작업에 효율을 늘린것이다.

(가)입장에서 볼때 (다)는 타당하지 않다. (다)는 선택이 불필요한 기억을 지우는 원근작업을 함으로써 기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는 (가)에서 본 낭비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억을 지우는 행위가 변칙적이고 완전치 못하다는 점은 (가)에서 낭비가 어쩔수 없는 행위라고 본 관점과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반해 (나)입장에서 볼때 (다)는 일견타당하나 온전치는 못하다. (다)에서 불필요한 기억을 선택을통해 제거하려 한다는점은 (나)에서 낭비를 유용하지않고 불필요하다고 본 관점과 일치하다. 하지만 (나)에서 길브레이크가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작업에 효율성을 높인데반해 (다)는 쓸모없는기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나)의 입장에서볼때 (다)는 온전히 타당하지 못하다.